

윤동주의 재일(在日) 시절에 나타난

시와 삶의 편린들

- 전기비평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송희복*

- 차례 -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취지
2. 동경의 '흐르는 거리'를 노래하다
3. 오래 남을 젊음과 사라지는 흰 그림자
4. 도시사의 증언자들과 교토에서의 일들
5. 영원히 잠이 든 후쿠오카의 수인
6. 결론 : 연구의 요약 및 결과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시인 윤동주가 생의 마지막 3년(1942. 3-1945. 2)을 일본에서 보냈다는 데 착안하여 시와 삶의 상호관련성을 바탕으로 비평적으로 재구성하자는 데 연구의 취지를 두었다.

*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hbsong@cue.ac.kr

재일 기간에 현존하는 작품은 그다지 많지 않다. 「흐르는 거리」는 아직 거처를 정하지 못한 자신의 방향의식을 나타내 보인 시다. 「사랑스런 추억」은 추억 속의 나를, 과거의 자아를 떼어내지 못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알게 한다. 「흰 그림자」는 영혼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자아의 성숙을 인간적으로 기약한 시다. 「쉽게 씌어진 시」는 최후의 나와 최초의 악수 서로 짝을 이루면서 주체적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자기 삶을 모색하고 있는 시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개신(改新)의 차원에서, 일본 자료는 물론, 문헌과 서책의 데이터 외에도 다큐멘터리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했다.

교토 시절 운동주의 삶은 그의 모습을 증언해주는 증인들이 등장해서 그의 삶을 복원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운동주의 의미 있는 다음의 어록이 발굴된다. '제군들에게는 죽음을 걸고 지킬 조국이 있지만, 내게는 지켜 내지 않으면 안 될 조국이란 게 없다.' 그밖에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도시사대학의 여자 동급생 두 명은 그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주제어 : 운동주, 시, 삶, 일본 시절, 도쿄, 교토, 전기적 사실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취지

운동주는 생의 마지막 3년을 일본에서 보낸다. 그가 있었던 곳은 동경과 교토와 후쿠오카였다. 이런 삶의 행적 때문에 일본에서도 운동주에 관한 관심이 적지 않다. 그의 시가 지금 일본의 고등학교 일부 국어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최근에 일본의 한 언론사는 자성의 논조로 그에게 관해 말한 바 있다.

해방(종전) 70주년이 되던 해인 2015년 3월 2일에,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이례적인 사설을 실는다. 사설의 제목은 「비극의 시인에 관한 생각은

가슴에(悲劇の詩人の思いを胸に)」이다. 조선일보는 그 다음 날에 이것을 우리말로 옮겨서 다시 실는다. 이 사설의 내용을 보면, 여기엔 후쿠오카 현립대 명예교수 니시오카 겐지(西岡健治)가 한일관계가 좀 어색해도 운동주 얘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순수해진다는 점을 들어 '운동주 매직'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사설은 매우 의미가 있고 여운이 그윽이 감도는 말 한 마디를 남긴다.

尹東柱は、なぜ姓を変えたのか。なぜハンゲルにこだわったか。(日本人として-引用者) 私たちは考えねばなるまい。¹⁾

운동주는 왜 성(姓)을 바꾼 것일까. 어째서 한글을 고집한 것일까. (일본인인-인용자)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²⁾

운동주는 이름은 과감하게 바꾸어도 우리 말글은 끝까지 고집했다. 그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을 건너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하게 된다. 그 어지럽고 착잡한 심경이 반영된 유명한 시가 「참회록」이다. 이 시를 메모지에 굵적이고는 며칠 후에, 학교에 찾아가 창씨개명을 신청한다. 참회의 기록이라고 하는 시를 쓴 종이의 여백, 여기저기에 어지러운 마음을 나타낸 낙서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비애금물(悲哀禁物)'이라는 메모이다. 현실을 슬퍼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일단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뜻이다.

본 연구는 시인 운동주가 생의 마지막 3년(1942. 3-1945. 2)을 일본에서 보냈다는 데 착안하여 이 기간에 쓴 현존하는 시편들과 삶의 전기적인 사실 간의 상호관련성을 바탕으로 작가 연구를 비평적으로 재구성하자

1) 「社説：悲劇の詩人の思いを胸に」, 朝日新聞, 2015, 3. 2.

2) 조선일보, 2015, 3. 3.

는 데 취지를 두고자 한다. 이 3년은 현존하는 시 작품 자체가 적다는 점에서, 그 동안 연구의 대상으로 거의 삼지 않았다.

운동주의 재일 기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일본 측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온 게 사실이다. 일본의 운동주 연구자인 (그와 같은 대학의 출신인) 우치고 쓰요시(宇治郷毅)는 논문 「한 저항의 시인 운동주」에서 소위 ‘재(在)교토조선인학생민족그룹사건’(1943)을 운동주의 일본 유학 시대(시절)의 핵심으로 보았다. 이 사건은 와세다대학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조선어와 한글을 포함한 ‘조선문화향상운동’(1939), ‘교토기독교사건’(1941), 국내의 ‘조선어학회사건’(1943) 등 일련의 사건을 이은 일종의 항일 문화운동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일본 특별고등경찰에게 탄압의 빌미를 제공한 좋은 미끼가 되었던(日本の特高警察の弾圧の好餌となった³⁾ 것’이다. 최근에는 다고 기치로(多胡吉郎)의 저서인 『생명의 시인 운동주(生命の詩人·尹東柱)』(2017)가 상자되어 일본 시절의 운동주에 관해 적잖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 시점에 이르러 그의 전기적 사실이 부쩍 확대되고 더 속 깊이 심화되고 있다.

운동주 연구는 보다 섬세한 통찰력이 요구된다.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해석하는 시선이랄까, 추론 능력 등이 필요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제재의 확장 및 방법론적인 개신(改新)의 차원에서, 그 동안 밝혀진 일본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는 한편, 그밖에도 문헌과 서책의 데이터 외에도 다큐멘터리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본 연구의 순서는, 목차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었듯이 동경의 ‘흐르는 거리’를 노래하다, 오래 남을 젊음과 사라지는 흰 그림자, 도시사의 증언자들에 의한 교토의 일들, 영원히 잠이 든 후쿠오카의 수인(囚人)이라는 소재목으로 전개되어 갈 것이다.

2. 동경의 ‘흐르는 거리’를 노래하다

운동주는 동경의 릿쿄(入教)대학 영문과에 본(本)과생이 아니라, 선(選)과생으로 입학한다. 그 당시에 일본의 대학을 입학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데 조선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었다. 당시의 고등학교는 제국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 기관이었다. 일반 사립대학의 예과 혹은 전문부의 과정은 당해 학교의 예비 과정이 된다. 그가 일본의 대학에 바로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전문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으로 학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스승인 조선어학자 김윤경이 자신의 모교인 릿쿄대학을 연결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랬다면, 아마 추천서를 써 주었을 것이다. 송몽규가 교토제국대학에 원서를 낼 때 그 당시에 연희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윤치호가 추천서를 써 주었듯이 말이다.

1942년 4월 초,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에서 세운 릿쿄대학에 입학한 운동주는 학교 당국에 자신의 주소지를, ‘신전구(神田區) 원락정(猿樂町) 2정목(町目) 4의 3’으로 신고한다. 이것이 지금도 학적부에 기재된 주소이기도 하다. 이 주소지는 재일본 조선인 와이엠시에이(YMCA)가 있던 곳. 운동주 연구자인 오무라 마쓰오 교수는 관계자를 통해 이 건물이 1930년대부터 조선인 유학생 숙박 시설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 거주하는 인물의 이름은 ‘평소영춘(平沼永春)’이다. 이 이름은 그의 당숙인 윤영춘의 창씨개명된 이름이다. 당시에 동경 시내에서 영어 학원의 강사를 하고 있던 인물로서 이미 문인으로 등단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영문학자, 교수로서 살았다. 1970년대에 이름을 드날린 포크송 가수였던 윤형주의 선친이기도 하다. 운동주는 1942년 4월 한 달가량, 당숙의 하숙방에 얹혀 지낸다. 학적부에도 당숙이 제2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宇治郷毅, 『詩人尹東柱への旅』, 綠蔭書房, 2002, 14면.

고 한다.⁴⁾

운동주가 1942년 4월에 초고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이 「흐르는 거리」이다. 이 시를 서울의 친구인 강처중에게 보낼 때 5월 12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날은 작품을 손질해 완성한 날짜가 아닌가 한다. 5월 12일이면 그가 동경의 교외에서 학교와 하숙방을 오가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의 내용처럼 전차와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의 체험이 없던 시기였다.

오스름히 안개가 흐른다. 거리가 흘러간다.

저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정박할 아무런 항구도 없이, 가련한 많은 사람들을 싣고서, 안개 속에 잠긴 거리는.

거리 모퉁이 붉은 포스트 상자를 붙잡고, 섰을라면 모든 것이 흐르는 속에 어렴풋이 빛나는 가로등, 꺼지지 않는 것은 무슨 상징일까? 사랑하는 동무 박(朴)이여! 그리고 김(金)이여! 자네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끝없이 안개가 흐르는데.

‘새로운 날 아침 우리 다시 정답게 손목을 잡아보세.’ 몇 자 적어 포스트 속에 떨어뜨리고, 밤을 새워 기다리면 금휘장에 금단추를 빼었고(끼웠고-인용자) 거인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배달부. 아침과 함께 즐거운 내림(來臨).

이 밤을 하염없이 안개가 흐른다.

- 「흐르는 거리」 전문⁵⁾

4) 오오무라 마스오, 『운동주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11, 56면, 참고.

5) 본 연구의 운동주 시편은 홍장학 지음 『정본 운동주 전집 원전연구』(문학과지성사, 2004)를 바탕으로 해 필자가 현대어 표기의 정본을 만들어 인용하였다. 이하 같음.

운동주가 하숙집을 정하기 이전인 4월 달에 도쿄 도심에 있는 와이엠시에이 회관에 딸린 숙박 시설에 임시로 머물 때 시심을 가다듬은 시편인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아직 정처가 없이 예제 떠도는 그의 방황 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시다. 조선에 두고 온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밤안개 자욱한 도심의 거리를 걷고 있다. 각별한 시심이 흐른, 동경의 ‘흐르는 거리’를 애뜻이 노래한 시. 시상의 흐름도 서정적이어서 매우 좋다. 시인 자신이 유랑하니까, 거리도, 안개도 자신의 동선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듯해 보인다는 내용의 시다.

운동주는 자신의 주변이 정리가 되니까, 학교에서 걸어서 2, 30분 걸리는 곳에 하숙방을 구한 듯하다. 아마도 5월 초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하숙방은 시에서 나타나 있듯이 왜뚫자리(다타미) 여섯 조각이 짝 찬 공간의, 이른바 시를 통해 잘 알려진 ‘육첩방’인데, 자신이 다니는 릿쿄대학 보다는 와세다대학이 더 가깝다. 이때부터 그는 하교 후면 하숙방에 칩거해 시와 일기도 쓰고, 학교 공부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운동주가 기거한 동경 하숙집의 그 ‘육첩방’을 가리켜 하상일은 조선인 와이엠시에이(YMCA) 숙박 시설이라고 적시하였다.⁶⁾ 문익환의 증언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문익환의 「하늘·바람·별의 시인 운동주」(1976)는 운동주 연구사의 초창기를 장식한 가장 대표적이고 신뢰할만한 전기 비평이다. 여기에는 이런 말이 없다. 다만, 문익환이 운동주의 동경 하숙집을 찾았을 때 그가 교토로 이사를 하기 위해 육첩방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다는 얘기뿐이다.⁷⁾ 운동주 자신도 그 육첩방을 두고 ‘동경 교외의 조용한 하숙방’이라고 했듯이, 동경 시내에 있는 그 숙박 시설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 그의 하숙집에는 한때 연희전문학교를 함께 수학했던 백인준도 다른 방을 쓰고 있었다. 이 사실은 방북한 소설가 황석영의 말로써

6) 하상일, 「운동주와 재일 디아스포라」, 학술회의 자료집, 『운동주와 디아스포라』, (사)한국작가회의 부산지회, 2009, 111면, 참고.

7) 문익환, 「하늘·바람·별의 시인 운동주」, 월간문학, 1976, 4, 319면, 참고.

확인된다. 그의 북한 방문기인 『사람이 살고 있었네』(1993)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백인준 선생은 금년에 일흔 돌이며 연희전문과 와세다를 나왔고 시인 운동주와 동경 시절에 같이 하숙을 했다고 한다. 시의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보니, 삶은 어려운데 시가 왜 이렇게 써지느냐고 하는—그 유명한 시를 쓸 무렵에 백선생과 운동주는 함께 살았다고 한다.⁸⁾

백인준은 북한을 대표하는 문학평론가였다. 광산업 거부의 아버지를 둔 그는 연희전문학교를 재학하다가 졸업하지 않고, 일본에 건너가 유학을 했다. 운동주에 비하면, 조기 유학인 셈이다. 그는 황석영의 말처럼 와세다대학을 다닌 게 아니라 릿쿄대학을 다녔다. 그는 일본의 특고경찰이 조작한 혐의가 짙은, (송몽규와 운동주가 교토에서 자행했다는) 저 조선인 유학생들의 민족주의그룹 사건에도 연루되었다. 어쨌든 그의 증언은 운동주가 살았던 동경 하숙집의 '육첩방'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⁹⁾

운동주는 1942년에 동경에서 다섯 달 정도 머물렀다.

그해 3월 말에서 7월 말까지 한 학기 공부를 위해 넉 달간 머물렀고,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 쉬다가 예정보다 훨씬 빨리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센다이에 있는 동북제국대학에 편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계획도

8) 황석영, 『사람이 살고 있었네』, 시와사회사, 1993, 28면, 참고.

9) 일본에서 운동주를 추모하는 일에 앞장을 서 온 여성 야나기하라 야스코(楊原泰子)는 『도쿄신문』(석간판, 2013, 1. 15.)을 통해 백인준(1920-1999) 북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립장이 1989년에 방북한 소설가 황석영에게 '운동주와 함께 동경에서 하숙하고 있었다.'라는 증언을 남긴 사실에 주목해 그의 학적부 주소 등을 통해 '쉽게 써어진 시'의 '육첩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 남겨져 있는 자료나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백인준의 하숙집은 '東京都淀橋区諏訪町'에 있었고, 더 자세한 주소는 '209菊花館'과 '212石神方'이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토 도시샤(同志社)대학으로 학업을 옮기는데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여름 방학 한 달 간을 동경에서 머물렀으리라고 추정된다. 동경에 모두 합해 다섯 달 정도 머물렀다는 얘기는 이러저러한 사실에 기인한다.

운동주의 동경 생활은 거의 알려진 게 없다. 3월 말에 교토에서 송몽규가 찾아와 윤영춘·운동주·송몽규 세 사람은 우에노 공원과 일본교(니혼바시) 등을 내 집 뜨락처럼 쏘다니곤 하는데, 이때 운동주 입에서 시니, 조선이니 하는 단어가 튀어나오곤 해, 당숙 윤영춘은 그에게 정말 조심해야 한다면서 단단히 주의를 준다.¹⁰⁾ 이 시기에 친구의 여동생으로서 성악하는 동경유학생 박춘혜와의 핑크빛 염문이 있었지만¹¹⁾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다.

학교 안에서의 일은 오리무중이다.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말 밖에 없다. 다만 박태진과의 문답이 최근에 알려져 그의 전기적 사실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눈길을 끌게 한다. 박태진은 이 무렵에 평양고보를 졸업하고 릿쿄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나이로 보아서 예과 학생일 가능성 높지만, 본과(영문과) 1학생이라면 운동주와 동급생이다. 그 당시에 릿쿄대학에 유학하고 있던 조선인들은 자주 모임을 가졌다. 어느 모임에서 박태진의 특기였던 프랑스 시 낭송이 운동주로 하여금 놀랍게 하였다. 낭송이 원어민처럼 유창했기 때문이리라.

1921년 9월9일 평양에서 태어난 선생은 평양고보를 나와서 모국어를 배웠던 1940년 일본 도쿄에 유학을 가서 릿쿄대학 문학부 영미문과를 다녔다. 재학 시에는 문학은 생각 못 했고 영어·불어를 열심히 한다고 한국인 동창들 간에 알려져 모임이 있을 때 시 낭송을 하게 되는데, 프

10) 송우혜, 『운동주 평전』, 열음사, 1988, 265면, 참고.

11) 같은 책, 277-278면, 참고.

랑스 시를 원어로 외는 것이 특기였다. 베를렌느, 랭보, 보들레르 등의 시를 외었다. 당시 유학 준비 중이던 운동주 시인도 와서 방청했다고 한다.¹²⁾

박태진이 프랑스 시를 낭송할 때마다 늘 갈채를 받았다. 어느 날, 운동주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때 운동주가 정말 유학 준비 중이라면, 3월 말에 조선인 학우회가 자리를 마련한 (신입생과 편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었을 것이다. 박태진의 증언이 한 일본인에게 전해져 최근에 책으로 나온 바에 의하면, 문답 내용과 함께 장면이 더 구체적으로 전해진다.

いつものように学友たちを前にフランス語の朗唱をしていると、見知らぬ留学生から「どうしたら、フランス語がそんなにうまくなるのか?」と尋ねられた。朴氏は東京にある語學校の アテネ・フランセで学ぶことを勧めたが、その質問をしてきた学生が尹東柱だったというのである。¹³⁾

박태진이 어느 때처럼 학우들 앞에서 프랑스 시를 낭송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유학생이 질문을 해왔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프랑스어를 잘 할 수 있어요? 박태진의 대답은 이랬다. 시내에 있는 어학교 '아테네·프랑세'에 가서 배워보세요. 뒤에 알고 보니 질문한 사람이 운동주라는 것이다. 박태진은 해방 이후에 시인으로 등단해 몇 권의 시집을 남겼다. 훗날 영국에 머물렀을 때 동갑의 시인 김수영에게 영국 현대시의 자료와 정보를 전해주면서 교분을 쌓았다.

12) 신광호, 「일상어로 새로운 맛을, 서정의 명에 박태진」, 월간문학, 2003, 1, 36면

13) 多胡吉郎, 『生命の詩人・尹東柱』, 影書房, 2017, 133면.

3. 오래 남을 젊음과 사라지는 흰 그림자

운동주가 재일(在日) 시절에 쓴 무수한 시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다섯 편 밖에 없다. 친구 강처중에게 보낸 시인데 해방 후에까지 잘 간직하여 유고 시집에 끼워 넣을 수가 있었다.

동경 유학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한 시기가 된 1942년 5월 13일에, 그는 「사랑스런 추억」이란 제목의 시를 쓴다. 동경의 릿쿄대학에 다닐 때 연희전문학교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추억어린 시편. 봄이 오던 아침에서 비롯된 시간적인 배경이 봄이 다가고 철이 바뀌는 조짐이 보이는 간절기에 이르기까지 기껏해야 두어 달 지났지만, 그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에 이른다.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히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취,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동경(東京)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까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 「사랑스런 추억」 전문

운동주가 신촌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경성역)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린다. 그때 신촌역 플랫폼에서 담배를 피운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서울역을 통해 부산역에 가서 부관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를 거쳐 동경으로 삶의 공간을 옮긴다. 동경의 하숙방¹⁴⁾에서 추억을 더듬으면서 시를 쓴다. 봄이 오던 그 아침의 일을 봄이 지나가는 날 동경(東京)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쓴 시가 「사랑스런 추억」이다.

이 시에는 특이한 시어가 있다. '간신한'은 한자말로 가난할 간(艱) 자에 매울 신(辛) 자로 이해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연변 방언 '가날픈'이었다는 증언도 있어 앞으로 확인해볼 미완의 과제다. 신촌역에서 연희전문 학교에 이르는 옛 거리, 추억의 거리를 회상하는 그 옛 거리에 남은 시

14) 필자는 운동주의 동경 시절에 드러난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최근에 두 차례나 도쿄를 방문하였다. 그의 모교인 릿쿄대학은 고색창연한 건물을 두른 푸릇한 녀쿨이 인상적이었다. 그의 동경 하숙집은 서울의 2호선과 같은 내부순환선인 야마노테(山手)선의 다카다노바바(高田馬場)역 주변에 있었다. 지금은 도심의 초역세권이지만, 지형이 많이 바뀌어 옛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이 역 부근에 '일본 플라워 디자인 전문학교'가 있고, 그 뒤쪽에 육첩방이 있는 하숙집이 있었으리라고 추정된다. 릿쿄대학과 다카다노바바역은 야마노테선이 지나가는 곳이다. 그는 동경 시내로 나들이할 때면 간헐적으로 오가는 40계 전동차를 타고 다녔다.

적 화자의 잔영(殘影)을,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는 것은 오늘의 나가 역설적이게도 과거의 나임을 말해주고 있다.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하나의 경인구처럼 회자되는 시적인 표현이다. 젊음은 시적 화자인 나의 과거이다. 나의 과거이기에, 사랑스런 추억인 것이다.

이 시편은 추억속의 나를, 과거의 자아를 떼어내지 못하는 운동주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게 한다. 추억속의 나를 떼어내 버리려고 한다면, 그는 독종의 인간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는 과거의 나, 현존하는 내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시 쓰기를 통해 통합하는 건전한 자아의 설정 및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운동주가 하숙방에서 쓴 시 가운데 '흰 그림자'를 소재로 한 시가 있다. 이때 '흰' 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나 현존의 정체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아마도 기독교 신자인 운동주에게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한다. 환(幻)이란 말을 가리켜 우리말로 '곡두'라고 한다. 환은 환영, 즉 헛것이고, 허깨비요, 실체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바 깨달을 각(覺)자와 서로 구분이 되는 지점에 놓이는 개념이다. 몇 년 전부터 이때까지 운동주가 온갖 스트레스에 빠져있어서, 번뇌 망상에 빠져 있어서 허깨비처럼 짓눌린, 혹은 가위눌린 생활을 하고 있었음이 감지되는데, 그는 이 시를 통해 좀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

황혼이 짙어지는 길모퉁에서

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오래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하루 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자.

- 「흰 그림자」 전문

이 시에서 화자인 ‘나’는 단수 개념이 아닌 복잡한 자아의 개념이다. 허깨비와 같은 자아들을 있는 제 자리로 돌려보내면, 그 그림자는 영혼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모든 것을 어리석게도 깨달은 다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말한다. 그러니까

이 시는 정신적인 성숙 내지 자기 계발이 기약되는 운동주의 귀한 시라고 보인다.

불교에서 그림자, 환(幻), 헛것에 대한 비유와 상징이 자주 사용되듯이, 시인은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를 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땅거미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해가 진 뒤 어스레한 상태. 또는 그런 때를 말한다. 박야(薄夜)니 석음(夕陰)이니 하는 한자어 유의어도 있다. 다른 하나는 벌레 유의 용어로서 땅거미과의 거미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땅거미가 전자의 경우처럼 어두울락 말락 할 정도의 어둠인 박암(薄暗)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면 시간적인 추이를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이 시간적인 추이의 개념을 후자와 관련해 공간적인 이동의 개념으로 환치하고 있다.

말하자면,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는 지혜로운 자의 귀에 울리는 은미(隱微)함의 깊숙한 소리가겠다. 깨달음이란, 다름이 아니라 박암과 총명, 중생의 미혹함과 각자(覺者)의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차별적인 지혜의 정도를 말한다.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은 깨달은 자의 상징으로 비친다. 이것은 그의 잘 알려져 있는 시편 「또 다른 고향」에서 말한 ‘지조 높은 개’를 연상하게 한다. 신념 깊은 양의 풀 뜯는 모습과, 지조 높은 개의 짖는 소리는, 시적 의미의 자질 및 동질성을 지향하고 있겠다.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운동주의 잘 알려져 있는 시편 「쉽게 씌어진 시」도 자신의 동경 시절에 쓰인 작품이다. 왜뚫자리(다타미) 여섯 조각으로 이루어진 육첩방¹⁵⁾이 있는 공간, 물론 형태는 전혀 다르게 바뀌었겠지만 지금도 흔적이 아련히 남아있을 어느 한 역사(驛舍)에서 허전한 뒷골목을 돌아서 놓여 있는 그 공간에서, 그는 새벽에 깨어나 빗소리를 들으면서 시를 쓴다.

그런데 이 시에서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았다는 내용은, 염상섭이 요코하마에 있는 인쇄소까지 가서 일을 했고, 이기영이 노동관을 찾아다녔고, 김용제가 우유와 신문을 배달하면서 지냈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그는 동경에 간 여타의 작가에 비해 아버지 덕에 살림살이가 그럭저럭 넉넉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고 했는데, 이 늙은 교수는 백수(白壽)를 누린 우노 데쓰토(宇野哲人 : 1875-1974)로서, 논어 신해석의 대가요, 일본 퇴계학의 선구자이다. (이 늙은 교수가 일본 퇴계학의 선구자라는 사실은 운동주 연구자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운동주가 이 우노 교수에게 강의를 들을 때는 이미 나이가 예순 일곱이었다. 강좌명은 ‘동양철(학)사’였다. 그는 동경제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 이후에 릿쿄대학에 출강을 했는데, 그는 우노 교수로부터 80점의 평점을 받았다.¹⁷⁾ 모국어 화자가 아닌 유학생이 이 정도 점수면 괜찮은 점수라고 하겠다.

15) 일본은 방(房)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우리는 걸핏 하면 방이다. 노래방, PC방, 빨래방, 찜질방……방은 일본식 한자어로 부옥(部屋)이라고 하는데 일본 발음으로는 ‘헤야’이다. 왜뚫자리 여섯 조각으로 만들어진 육첩부옥이 일본식 발음으로는 ‘로쿠조베야’라 한다. 운동주가 일본어인 로쿠조베야나, 일본식 한자어인 육첩부옥이라고 쓰지 않고, 육첩방이라고 한 것은 우리말의 주체성을 잘 살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처럼 말 한마디에도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알았다.

16) 김응교, 「일본에서의 운동주 인식」, 학술회의 자료집, 『운동주와 디아스포라』, (사)한국작가회의 부산지회, 2009, 18면, 참고.

17) 운동주는 유소년기에 할아버지보다 예닐곱 살 많은 연로한 외삼촌 김약연 선생으로부터 가학으로 동양 사상을 공부했는데,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동양학의 대가 우노 데쓰토에게 동양철학사를 배운다. 그의 삶 의식과 사상의 깊이에 유교적 휴머니즘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현존하는 운동주의 시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쉽게 씌어진 시」의 본문에서 가장 고조된 부분은 마지막 두 연이다. 즉 ‘등불을 밝혀’에서 ‘최후의 악수’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최후의 나와 최초의 악수는 대구(對句)가 된다.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최초의 악수는 현실을 인내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요, 최후의 나는 미래의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최후의 나는 미래의 나, 조국 광복을, 나라를 찾는 것을 보게 되는 주체적인 자아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나를 드러내기 위한 현실적인 전제 조건이 결국 바로 최초의 악수가 되는 것이다.

시편 「쉽게 씌어진 시」의 마지막 부분인 제9·10연은 일본의 운동주 연구자인 우지고 쓰요시(宇治郷毅) 역시 자신의 비평문 「운동주의 생애와 시」에서 이미 오래전에 주목하기도 했다. 일본어 원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九連と十連がこの詩の核心を成す部分だ。九連において、彼はいかに今が暗澹とし状況に あっても、必ず夜が明けて朝がくるように、新しい時代の到来を予感している。今は暗闇が絶頂に達しているが、まさにこの時点で彼は恥多き自己を去り、再生を願う‘最後のわたし’であろうとした。そして最終連において、彼は長い試練と彷徨の過程をへて、最初の朝を迎える 自己に憐憫をこめて ‘最初の握手’をする。これはすでに暗闇の中に閉じ込められ煩瑣なことに 思いづらっていた自己を解き放ち、希望に満ちた新しい出発を可能としうる地点に到達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¹⁸⁾

18) 日本基督教団出版局 編輯, 『死ぬ日まで天を仰ぎ—キリスト者詩人・尹東柱』,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95. 83면.

이 내용을 대체로 정리하자면, 그는 운동주가 암담한 상황의 밤이 밝아오듯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감하면서, 부끄러움이 많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거듭 나는 ‘최후의 나’를 바라기 위해서는 아침을 맞이할 ‘최초의 나’에게 스스로 악수를 청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에 비평가 신형철이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관해 나와 우지고 쓰요시의 견해와 비슷한 논조로 언급한 바 있다. 서로 서로 표현은 달라도 해설은 비슷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악수는 ‘내가 나에게’ 하는 악수다. ‘최초의 악수’라고 했으니 그 이전에는 악수를 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부끄러워만 했던 시절의 운동주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온전히 긍정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최후의 나’가 탄생하여 ‘직전의 나’에게 손을 내민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고, 이제 너는 부끄럽지 않아도 된다고. 또 ‘직전의 나’는 ‘최후의 나’에게 말했다. 네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그러나 네가 자랑스럽다고.¹⁹⁾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거니와, 가장 어두운 때는 해가 뜨기 직전이다. 운동주는 일제가 그 당시에 수행하던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가장 어두운 시대임을 말하면서 이 전쟁이 끝나면 바로 밝은 시대가 온다는 희망을 가졌다. 전쟁이 종식된 직후의 화평의 시대 말이다.

운동주 시 대부분이 본질적 자아와 또 다른 자아, 참된 자아와 거짓된 자아 사이의 갈등에 관한 내용이다. (정신분석적으로는 ‘자기’라고 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표현을 따른다.) 자아와 자아의 격투, 존재와 존재의 싸움이 운동주 시 세계의 주된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시에 이르면 마

19) 한겨레신문, 2016. 4. 2.

침내 자아와 자아가 화해를 이루는 국면을 보여준다. 운동주의 시에서는 아주 보기가 드문 일이다. 그의 현존하는 마지막 시에 이르러, 마침내 극적인 반전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다.

4. 도시사의 증언자들과 교토에서의 일들

운동주는 교토에 소재한 도시사대학의 영문과로 학적을 옮긴다. 이 이유에 관해서는 박춘혜라고 하는 이름의, 성악을 공부하는 동경 유학생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점을 추리해볼 수 있겠지만 증빙이 빈약하다. 그가 도시사대학에 편입한 날은 1942년 10월 1일. 그가 지내던 숙소는 죽한 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발품을 들여 연구한다는 국문학자 김윤식은 운동주가 살던 위치를 1980년대 말에 조사한 바 있었다. 운동주를 취조한 극비 자료인 『특고월보』에 의하면, 그의 주소지는 교토시 좌경구(左京區) 중고원정(中高原町) 27번지 다케다(武田) 아파트이다. 아파트라고 해서 요즈음 식 아파트가 아니다. 이층으로 기다랗게 이어져 있는 공동주택이다. 목조형 전통 공동주택인 나가야(長屋)와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 부인의 소개로 이 근처에 50년 넘게 살아온 노인을 만난다. 키 작고 건장하게 보이는 노인은 8월 4일이니 잠방이 같은 잠옷 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케다 아파트의 부근에는 포플러나무가 죽 둘러싸인, 근처의 작은 호수가 있어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아파트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특히 많았다. 1945년 원인 모를 불이 나 전소했지만, 미군의 폭격에 의한 화재는 아니라고 했다.²⁰⁾ 지금도 운동주의 숙소가 있

20) 김윤식, 『청춘의 감각, 조국의 사상』, 솔, 1999, 67면, 참고.

던 자리에 아파트는 예술단기대학의 분교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첫 학기에 대한 행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그해 하반기의 전기적 사실은 거의 공백 상태다. 다만 그해 설달그믐날과 그 다음 날인 정초의 행적은 나타나 있다.

1942년이 저무는 설달그믐, 당숙인 (앞에서 언급한 인물인) 윤영춘이 귀국하기 위해 교토에 들러 운동주와 만난다. 이 사람과 운동주는 당숙질 관계지만 나이로 볼 때는 형과 아우 같은 사이였다. 1942년 12월 31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니, 전쟁 중이라도 교토의 거리는 흥청망청하는 분위기였다. 일본 사람들은 설달그믐날 저녁에 왜식 메밀국수인 소바, 특히 따뜻한 국물의 소위 ‘가케소바’를 먹는 풍습이 있다. 윤영춘의 증언에 의하면, 이날 야시장 노점에서 파는 어묵과 삶아놓은 돼지고기와 참새고기를 실컷 먹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날 밤, 운동주의 숙소에서 두 사람은 밤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한다. 이때 운동주의 시인관이 윤영춘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다.

……프랑스 시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와, 프랑시스 잠의 시는 구수해서 좋고 신경질적인 장콕토의 시는 염증이 나다가도 그 날신날신한 맛이 도리어 매력을 갖게 해서 좋고, 나이두의 시는 조국애에 불타는 열성이 좋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흥에 겨워서 무릎을 치기도 했다.²¹⁾

운동주는 우선 프랑시스 잠의 시가 구수해서 좋다고 했다. 그의 불멸의 명편 「별 헤는 밤」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함께 소환한 시인의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는 시인 미요시 다쓰지가 번역한 『밤의 노래』(野田書房, 1936)를 구해 읽었다. 이때가 1940년 1월 31일이었다.²²⁾ 겨울방학에

21) 윤영춘, 「명동촌에서 후쿠오카까지」, 『나라사랑』, 제23집, 1976, 110-111면.

22) 오오무라 마스오, 앞의 책, 63면, 참고.

용정에서 구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시에 관해 과묵한 탓에 잘 알 수 없는 필자가 신경질적인 장 콕토의 시가 싫증이 나다가도 그 날씬날씬한 맛이 도리어 매력을 갖게 해서 좋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거니와, 나이두의 시가 조국애의 불타는 열성-요즈음 식의 뉘앙스라면, 열정에 해당하는 개념-이 좋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 그가 인도의 여성 시인이자 여성 정치가인 사로지니 나이두(Sarojini Naidu : 1879~1949)의 시를 좋아한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그가 같은 시대의, 같은 식민지 시인으로서 공감하고 있다는 증좌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비교문학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새해 첫 날에는 운동주와 윤영춘은 비파호에 산책을 갔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넘었다. 이것은 조선의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었다. 윤영춘은 아름다운 광경에 탄성을 질렀지만, 운동주의 반응이 무디었다고 했다. 그는 경치가 아름다운 것 따위야말로 관심 밖이었던 것이다. 이 겨울 방학 때, 그는 (훗날 북한의 대표적인 문학평론가 되고, 또 고위직에 오른) 친구 백인준을 만나러 동경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다. 훗날 철학자로 유명한 안병욱은 그의 절친이기도 했다. 그의 신주쿠 하숙집에서 운동주가 벽에 등을 기대고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바 있었다.

1994년 일본 NHK 다큐멘터리 디렉터인 다고 기치로(多胡吉郎) 씨는 ‘조선에서 온 유학생 히라누마 도츄를 아십니까?’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릿쿄와 도시샤의 영문과에 재학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해 엄청나게 질문을 했다. 대부분이 모른다고 하는 대답뿐. 운동주를 기억하는 일본인이 없다고 판단할 무렵에, 한 할머니가 ‘히라누마 씨 말씀이지요. 네 알아요!’ 하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의 동급생 여학생인 모리타 하루와 기타지마 마리코. 운동주와 이 두 여학생이 함께 프랑스어 강의를 듣기도 했다.

그해 오월 경에 운동주는 동급생 친구들 하고 교토 교외의 우지강변과

아마가세 현수교에서 야유회를 갖는다. 조그만 솔하고 단무지니 일본식 절임 야채 등을 가지고 가서 넷물 흐르는 계곡에서 밥을 지어 먹고, 이들은 모처럼 바위 위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쉬고 있는데, 누가 그랬다. ‘어이, 히라누마 군, 노래 한 곡 불러보지.’ 히라누마는 운동주의 일본식 이름인 히라누마 도츄를 가리킨다. 그는 주저하지도 않고 조선어로 ‘아리랑’을 불렀다. 지금도 아흔 훌쩍 넘은 기타지마 마리코 씨는 그때의 일을 감동적으로 회고한 바 있다.

식사가 끝난 후에 누군가가 ‘어이! 히라누마 군! 노래라도 한 자락 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히라누마 씨가 활짝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국말로 된 한국인이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했어요. 목소리도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음이었고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였는데요, 아리랑을 불렀어요. 정말 훌륭하게 불렀어요.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 기타지마 마리코²³⁾

또 다른 동급생인 모리타 하루 씨도 최근에 이런 증언을 남겼다. ‘당신들은 운동주 씨를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알아요. 자세가 좋았어요. 키가 크고, 그분은 항상 바른 자세였어요.’²⁴⁾ 운동주는 평소에 조선의 전통 선비처럼 늘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 또 다른 일이 있었다. 이 멤버들은 야유회가 있고 얼마 후에 한 학기를 마친 감사의 뜻에서 교수 댁을 찾아간다. 학년을 담당할 생활지도 교수인 그는 우에노(上野)였다. 우에노 교수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

23) KBS 다큐멘터리, 「불멸의 청년 운동주」, 2017, 인터뷰 자막.

24) 같은 자료, 인터뷰 자막.

지만 디근 자 형태로 된 상에서 학생들과 차를 마시면서 “시국의 상황이 악화일로다. 제군들은 항상 몸조심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주의를 준다. 이때 그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했던 같다. 이 대목에서 우에노 교수와 운동주는 언쟁을 벌였다. 다고 기치로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남자 동급생과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기억이 나는 게 없다고 했지만, 훗날 기억이 되살아나서 다시 통화가 이루어져 그때 운동주의 소중한 어록이 증언되었다.

……集まりのうちに学生たちぎひとりずつ挨拶に立ち、そのとき朝鮮からの留学生が「諸君には死を睹して守る祖國がある。だが私には守るべき祖國がない」というような趣旨の發言をして、一瞬、座がしらけたようになったが、上野教授がびしゃりと彼を制した……²⁵⁾

한 학기가 끝나고 학생들이 우에노 교수 댁에 인사를 하러간 일이 있었다. 1942년 1학기 종강 때문이었을 것이다.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인사말을 했다. 이 인사말은 한 학기를 마친 소감이었을 것이다. 운동주는 ‘제군들에게는 죽음을 걸고 지킬 조국이 있지만, 내게는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될 조국이란 게 없다.’라는 발언을 해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우에노 교수는 그의 말을 딱 제지하였다.

운동주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볼 때 굉장히 위험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던 것이다. 이 어록이 여태껏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것은 그가 남긴 최고의 어록이라고 생각된다. 이 어록은 앞으로 운동주의 조국관을 연구하는 데 긴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운동주의 동급생인 모리타 하루 역시 1995년에 이렇게 증언한 바 있었다.

영문과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학생들이 교수님 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중에 운동주 씨와 교수님 사이에 민족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두 분이 매우 감정적으로 다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주 씨가 말대꾸를 했습니다, 가만있지 않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 학교에까지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 모리타 하루²⁶⁾

이 증언은 앞의 증언과 대동소이하다. 운동주의 감정이 분격하였다면,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말보다 “센세(선생님), 나는 여기(도시샤)에 공부하러 왔지, (미국을 위해) 간첩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대응했으리라고 본다. 이때부터 우에노 교수와 운동주 사이에는 좀 이상한 기류가 흐른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운동주의 숙소에 형사들이 들이닥친다. 우에노 교수와 특고경찰이 내통되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 당시에 특고경찰은 사복을 입고 대학의 교정을 활개를 치듯이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5. 영원히 잠이 든 후쿠오카의 수인

어쨌든 운동주는 1학기 종강할 무렵에,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먼저 송몽규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다. 운동주가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는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여비가 빨리 도착했다라면 몸이라도 먼저 피했을지 모른다. 그 당시에 교

25) 多胡吉郎, 앞의 책, 341면.

26) KBS, NHK 공동 제작, 해방-종전 5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운동주, 일본 통치 하의 청춘과 죽음」(1995), 인터뷰 자막.

토에 숨어 지내던 김형석은 ‘너, 조심하라.’고 하는 한 형사의 도움말에 재빨리 도망을 쳐 살아남았다고 했다.²⁷⁾ 다음의 자료는 1995년 8·15 광복 기념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운동주, 일본 통치 하의 청춘과 죽음」 오프닝 시퀀스에서 인용한 말이다.

1943년 7월 24일 운동주의 하숙방에 교토 시모가모 경찰서의 특고 형사가 들이닥쳤다. 운동주는 여름방학에 귀향하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었다. 운동주는 체포된 것이다. 특고경찰의 내부 자료, 특고 월보. 여기에 의하면 운동주는 조선인 유학생들과 가끔씩 부합하여 조선의 미래를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조선 민족은 이제 멸망하려고 한다. 우리는 조선인의 의식을 잃어버리지 말고, 조선 고유의 문화를 연구하고, 조선 문화의 유지 향상을 꾀하는 것이 민족적 문화인의 사명이다. 특고경찰은 조선 독립을 부추겼다고 운동주를 체포한 것이다. 이때 조선어로 쓴 시도 물수당해 돌아오지 않았다.²⁸⁾

운동주는 교토 시모가모 경찰서에서 5개월 동안 조사를 받고, 법원으로 부터 형이 확정된다. 그의 당숙인 윤영춘이 당시 경찰서에 면담을 신청해 성사되었을 때, 운동주는 경찰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일기와 시 노트를 번역하고 있었다. 일본의 여성시인인 가와즈 료에가 저술한 『어둠보다 검은 빛의 노래』(2015)에 의하면, 운동주가 조선어로 시와 일기를 쓴 사실을 두고, 내용이 어떻든 간에 특별고등 경찰은 이 같은 문자행위 자체를 독립운동으로 간주하면서 그를 체포했다고 한다.²⁹⁾ 운동주는 일본에 머물면서 우리말로 된 시와 일기를 적잖이 썼지만 당시에 다 압수되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라곤 찾아볼 수조차 없다.

결국 운동주의 확정된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이었다. 사건명은 재경

27) KBS 일요방담, 1985, 12, 29.

28) KBS, NHK 공동 제작, 앞의 영상 자료, 오프닝 코멘트.

29) 河津聖惠, 『闇より黒い光のうたを』, 藤原書店, 2015, 22면, 참고.

도(在京都)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그룹 사건.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일본을 점령하면서 이 악법을 당장에 없애 버린다.) 교토에 살고 있는 조선인 유학생들이 서로 만나 그룹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꾀했다는 것. 모두 7명의 학생들이 연루되었는데 중심인물은 세 사람이다. 송몽규가 주범이고, 운동주는 공범인 셈이다. 또 한 사람은 일본에서는 천하의 명문 학교라고 하는 제3고등학교 학생인 고희육. 이 역시 두 사람을 도와준 단순한 종범(從犯)으로 취급되었지만 중심인물로 판단되었다. 특별고등 경찰은 이 세 사람이 1942년 10월부터 1943년 7월까지 교토 시내 각처에서 수시로 회합을 가져 불법 모의를 책동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본 이들에 대한 기록문서는 수십 년 후에 공개되었다. 엄비 기록 『특고월보(特高月報)』 1943년 12월호에 따르면, 이들의 죄목은 모두 열세 가지로 나열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한 모의 내용은 첫 번째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다.

조선의 현황을 보건대 제 나라 말도 글도 쓸 수 없게 되어 조선 민족은 바야흐로 멸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잊지 말고, 조선 고유의 문화를 연구하고, 조선 문화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민족적 문화인의 사명이다. 조선 민족은 결코 열등한 민족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계몽만 하면 고도한 문화 민족이 될 것이다. 문화적으로 깨이고 민족의식을 자각하기에 이르면, 조선의 독립은 가능한 것이다.³⁰⁾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실형을 받는다. 송몽규와 운동주에 비해 비교적 죄가 가벼운 고희육은 잠시 감옥에 잡혀 있다가 곧 풀려났다. 특고 경찰이든 재판소는 한 통속에 지나지 않았다. 두 기관 모두는 표적 수사 사건 조작을 통해 이들을 단죄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

30) 문학사상, 1977, 11, 305면.

다. 특히 재판부는 운동주가 이 사건에 연루된 7명의 학생 가운데 창씨개명인 송원휘충(松原輝忠 : 마쓰바라 데루타다)과 백야성언(白野聖彦 : 시라노 기요히코)을 포섭의 대상으로 삼아 계도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교토 재판부는 운동주가 그 동안 다음과 같은 위법적인 일이 있었음을 판단하였다.

1942년 11월 하순경에, 백야성언에게 조선어학회 검거를 논란(비판)하며 조선 문화의 양양에 힘써야 한다고 지시했다. 동년 12월 초순경에, 백야성언에게 조선 민족은 개인적 이해를 떠나서 민족 전체의 번영을 초래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1943년 2월 초순경에, 송원휘충에게 조선어 과목의 폐지됨을 비판하며, 조선 문화의 유지, 조선 민족의 발전을 위해 독립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동년 2월 중순경에, 송원휘충에게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 압박이 있다고 비난한 후, 조선 민족의 행복을 위해 독립이 급무임을 역설했다. 동년 5월 초순경에, 백야성언에게 조선의 현 상황을 타파하고 고유문화를 발양하기 위해서는 독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동년 5월 하순경에, 송원휘충에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일본이 패전해야만 한다는 자기의 견해를 누누이 피력했다. 동년 6월 하순경에, 백야성언에게 민족의식의 강화를 위해 자기가 소장한 『조선사 개설』을 빌려주면서 조선 역사 연구를 종용하였다. 7월 중순경에, 송원휘충에게 문학은 민족의 행복 추구의 견지에 입각해야 한다는 뜻의 민족적 문학관을 강조했다.³¹⁾

보다시피, 이 정도의 일로 미행과 표적 수사를 실행하고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사건을 조작한 혐의가 없지 않음을 말해준다. 어쨌든 운동주의 계도의 대상이 된 사람은 송원휘충과 백야성언이다.

31) 송우혜, 『운동주 평전』, 열음사, 1988, 325-326면, 참고.

송원휘충의 본명은 김주현이었다. 1920년 함북 경성 출신이며, 히로사키(弘前)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942년 10월 교토제국대학 법학부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재학 중에 학도병으로 자원하지 않고 노동자로 스스로 징용되었다.³²⁾ 백야성언의 본명인 장성언은 도시사대학 영문과에 재학하다가 도미하였다. 훗날 미국에서 영어사전 만드는 데 종사했다.

그 당시에 일본 교토 재판소가 본 운동주관은, 다음의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듯이

피고인은 (……) 어릴 때부터 민족적 학교 교육을 받아 (……) 일찍이 치열한 민족의식을 품고 있었는데, 성장하여 내선(內鮮) 간의 소위 차별 문제에 대하여 깊이 원차(怨嗟)의 마음을 품는 한편 아(我) 조선 통치의 방침을 보고 조선 고유의 민족 문화를 절멸하고 조선 민족의 멸망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여긴 결과, 이에 조선 민족을 해방하고 그 번영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조선으로 하여금 제국 통치권의 지배로부터 이탈시켜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밖에 없³³⁾

다는 사실을 망신(妄信)했다는 데 있었다. 운동주는 후쿠오카의 수인(囚人)으로 수감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감방에 혼자 있었기에 그를 증언해줄 사람도 없었다. 이 시기에 어두운 독방의 공간 속에서도 가족과 틈틈이 엮서로 소통했다. 이것이 한 줄기의 실낱같은 빛이었는데도 모른다. 반드시 일본어로 써야 전해주었기 때문에 엮서는 일본어로 썼다. 그와 아우 일주와 소통한 내용이 윤일주의 글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32) 미즈노 나오키, 정한나 역, 「일본 유학시절의 운동주와 송몽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세학풍연구소, 『운동주와 그의 시대』, 해안, 2018, 217면, 참고.

33) 권영민 역음, 『운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546면.

윤일주 : 붓끝을 따라온 귀뚜라미 소리에 도 벌써 가을을 느낍니다.

운동주 : 너의 귀뚜라미는 홀로 있는 내 감방에서도 울어준다. 고마운 일이다.³⁴⁾

형제가 주고받은 엽서의 내용은 이상과 같이 한 편의 시, 깊이 있는 일종의 선문답처럼 감지된다. 계절의 추이 양상을 볼 때 1944년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 사이에 주고받은 엽서의 내용인 것 같다. 그 당시에 엽서의 문장이 일본어가 아니면 전달되지 않았다. 내용에 따라서 전해지지 않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윤일주의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³⁵⁾

筆先(ふでさき)に
しっついてきた
こおろぎの
鳴(な)き声(こゑ)既(すで)に
秋(あき)感(かん)じます

이 문장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전통 시가의 하나인 단카(短歌)의 정형률(자수율)인 5·7·5·7·7로 맞추어진다. 아우 윤일주와 그의 형에게 엽서가 전달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 나머지, 일본 교도소 근무자들에게 발신자의 불순한 의도가 없고 수신자에게 소식을 꼭 전해달라는 간곡한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일부러 일본 시가의 전통 음수율에 맞추지 않았나 하고 짐작할 수 있겠다.

34) 윤일주, 『운동주의 생애』, 『나라사랑』, 앞의 책, 161-162면, 참고.

35) 필자는 어느 사적인 모임에서 인덕대학교 교수인 일본인 하야시 요코, 같은 대학의 일본어 전공 교수인 오석륜과 함께 윤일주와 운동주의 엽서 문장에 대해 일본어 번역을 의뢰해본 일이 있다.

이로부터 한 5개월 후에 운동주는 영원한 불귀의 객이 되고 만다. 어쨌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수인(囚人)으로서 생활하던 송몽규와 운동주가 함께 죽음을 당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규슈 의과대 의사들에 의해 생체 실험을 당한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들이 미군 포로를 상대로 반(反)인권적인 생체 실험을 자행해 맥아더의 전범 재판을 앞두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자살을 해버린다. 운동주 죽음의 원인을 확증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종전 직후에 모든 불리한 자료는 없어졌다. 그래야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지금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고, 증언할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다. 그 당시 후쿠오카 감옥 속에 조선인 청년 지식인들이 사상범으로 적잖이 잡혀 있었는데 이들도 다 같이 죽었으면 몰라도 대부분 살아서 해방이 되었던 사실 역시 역사의 진실을 미궁에 빠뜨리게 한 원인이 되고 있다.

6. 결론 : 연구의 요약 및 결과

운동주는 처음 동경에 와서 다섯 편의 시를 썼다. 원고 상태가 온전하게 전해진 것은 네 편이다.

아직 정처가 없이 예제 떠도는 그의 방황 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흐르는 거리」는 시인 자신이 유랑하니까, 거리도, 안개도 자신의 동선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듯해 보인다는 내용의 시다. 서울 생활을 그리워한 「사랑스런 추억」은 추억속의 나를, 과거의 자아를 떼어내지 못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게 한다. 허깨비와 같은 자아들을 있는 제 자리로 돌려보낸다는 「흰 그림자」는 영혼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모든 것을 어리석게도 깨달은 다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시인은 말한다. 마지막으로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쉽게 씌어진 시」는 최후의 나와 최초의 악수 서로 짝을 이루면서 주체적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자기 삶을 모색하고 있는 시다.

교토 시절의 운동주는 많은 시편을 남긴 것으로 짐작하지만 모두 압수되어 소각되었다. 다만 그의 삶의 모습을 증언해주는 증인들이 등장해 그의 삶을 복원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도시사대학의 여자 동급생 두 명은 그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했다.

송우혜의 『운동주 평전』은 30년 가까운 노력의 결실이다. 운동주의 삶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가장 정성을 기울인 서책이다. 초간본(1988), 제1차 개정판(1998), 제2차 개정판(2004), 제3차 개정판(2012)을 만들어 오면서 그의 전기적인 사실을 복원하는 데 마음의 피를 쏟아왔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언급된 운동주의 전기적인 사실들은 제3차 개정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결락된 내용들이다. 증언자가 거의 사라진 마당에도 그의 새로운 애깃거리는 이어져온 셈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운동주의 전기비평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라고 되었으면 한다.

필자에게는 운동주의 연구자로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즉, 그의 새로운 전기적 사실은 앞으로도 더 밝혀져야 한다.

[ABSTRACT]

The Poetry and Life of Yun Dong-ju in his days of Japan

Song, Hui-Bog(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 Yun spent the last three years of his life in Japan from March 1942 to February 1945. He went to Japan for studying, but ended up failing to achieve his goal and died as a political prisoner.

2. He left five poems in the days of Tokyo. There are four poems which the manuscripts of them are remained intact. Titles of those poems are such as, there are flowing streets, loving memories, white shadows, and poems written easily.

3. Yun Dong-ju's life in Kyoto has been much restored by the recent appearance of witnesses. The fact that he died from a biological experiment is still remained as unknown.

Key words: Yun Dong-ju, Poetry, Life, days of Japan, Tokyo, Kyoto, a biological experiment

[참고문헌]

□ 단행본

- 권영민 엮음, 『운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540-549면.
 김윤식, 『청춘의 감각, 조국의 사상』, 솔, 1999, 61-69면.
 송우혜, 『운동주 평전』, 열음사, 1988, 260-269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세학풍연구소, 『운동주와 그의 시대』, 혜안, 2018, 211-221면.
 홍장학, 『정본 운동주 전집 원전연구』, 문학과지성사, 2004.

□ 논문

- 김응교, 「일본에서의 운동주 인식」, 학술회의 자료집, 『운동주와 디아스포라』, (사)한국작가회의 부산지회, 2009, 16-19면.
 신광호, 「일상어로 새로운 멋을, 서정의 명예 박태진」, 월간문학, 2003, 1, 35-36면.
 윤영춘, 「명동촌에서 후쿠오카까지」, 『나라사랑』, 제23집, 1976, 110-111면.
 윤일주, 「운동주의 생애」, 『나라사랑』, 앞의 책, 161-162면.

□ 외서 및 번역서

- 多胡吉郎, 『生命の詩人・尹東柱』, 影書房, 2017, 133면.
 河津聖恵, 『闇より黒い光のうたを』, 藤原書店, 2015, 22쪽, 참고.
 오오무라 마스오, 『운동주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11, 56면.

□ 신문 및 방송 자료

- 조선일보, 2015, 3. 3.
 朝日新聞, 2015, 3. 2.
 한겨레신문, 2016, 4. 2.

KBS · NHK 공동 제작, 해방-종전 5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운동주, 일본 통치 하의 청춘과 죽음」, 1995.

KBS 다큐멘터리, 「불멸의 청년 운동주」, 2017.

KBS 일요방담, 1985, 12. 29.

접수일 : 2019. 07. 24 총평일 : 2019. 08. 19 게재확정일 : 2019. 08. 24